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천연기념물 종자 안식처 확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문화재청과 국가 중요 자연 유산 보전을 위한 맞손

“천연기념물, 시드볼트 영구 저장을 통해 유전자원 보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 이하 한수정)은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천연기념물 식물군 종자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0일(수) 체결했다.

한수정은 올해 3월 발생한 울진 산불과 관련하여 재해에 취약한 국가 중요 자연 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손을 잡았다. 전국의 고사 및 재해 위험에 처한 천연기념물 유전자원을 시드볼트에 영구 저장하여 후손에 물려주려는 것이다.

※ 시드볼트는 지구에 대재앙이 닥쳐 식물이 사라질 때를 대비해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종자영구저장 시설로 전 세계에 단 두 곳, 노르웨이 스발바르와 대한민국에 있다.

본 협약은 한수정과 문화재청 간 천연기념물 식물 유전자원의 장기 중복보존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력 분야로는 ▲천연기념물 종자 시드볼트 중복보존 ▲자연 유산 식물 분야 기술 자문 ▲천연기념물 동·식물 유전자원 정보교류 ▲기후 변화 대응 공동연구 등이 내용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본 협약을 통해 국가 천연기념물 식물에 대하여 2022년 경북권 38 건을 시작으로 5년간 172건의 천연기념물의 종자를 시드볼트에 영구히 저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중요 자연 유산인 천연기념물의 식물군에 대한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되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대한민국 자연 유산의 마지막 대피처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업무 담당자 김진기 대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야생식물종자 뿐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연구사적 가치가 있는 식물종자를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시드볼트에 영구히 저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수정 창립 5주년 시드볼트 저장 종자 10선 선정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지난 5년간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영구저장된 의미 있는 종자 10선을 발표했다.

시드볼트에 영구저장된 의미 있는 종자 선정은 지난 5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 방문한 관람객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종자 10종을 포함한 주요 종자 12종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기획운영실에서 종자 캐릭터 'Another Universe 생명을 품은 씨앗들의 세계'로 제작됐다. 일러스트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식 홈페이지 수목원 디자인서비스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식 홈페이지

www.bdna.or.kr

배기화 시드볼트운영센터장은 “시드볼트는 기후변화, 전쟁, 재해 등에 대비해 산림생물자원을 영구 보전하고 있으며, 선정된 10종의 종자 외에도 중요한 종자들이 저장돼 있다.”며 “선정된 종자 캐릭터를 활용한 다채로운 2차 창작물을 제작해 종자의 중요성과 시드볼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도서〈시드볼트〉 시드볼트 사람들 출간

시드볼트, 도서 발간을 통해 기록의 첫 발판 마련

〈시드볼트〉 지구의 재앙을 대비하는 공간과 사람들



시드볼트운영센터 담당자 송치현 주임은
“이 책에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시드
볼트에 대한 이야기가 전문 스토리작가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담겨 있다.”라며 “앞으
로 전문 스토리 작가들과 다양한 시드볼트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책은 야생식물 종자를 수집하는 방법과 낮은 온도에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과정을 작가의 시선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지은 전문출판사 ‘시월’의 박정우 대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어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100년간 우리는 다 함께 ‘힘을 합쳐’
이 지구를 아프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시드볼트는 이런 현실을 만들어 낸 우리 세대의 책임인 동시에 우리
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윤산일지도 모릅니다.

도서 <시드볼트> 중에서

구상씨, 미선씨가 소개하는 시드볼트 공식홍보영상 발표

국가대표 씨앗금고 시드볼트, 공식캐릭터로 MZ 세대 겨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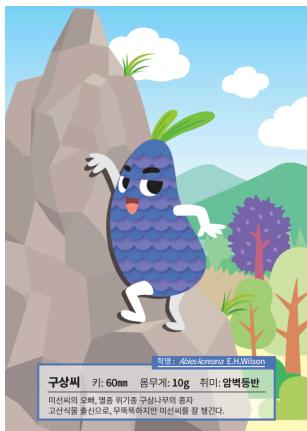
“구상씨, 미선씨와 함께 인류의 미래를 대비해 시드볼트를 홍보해 나가기로”



(동영상 클릭시 재생합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4월 27일 세계 최초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시설인 시드볼트의 공식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드볼트 공식 캐릭터는 구상씨와 미선씨로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구상나무와 미선나무의 종자를 모티브로 개발되었다.



학명 : *Aubergine* E.H.Wilson
구상씨 키: 60mm 봄무게: 10g 취미: 암벽등반
미선씨의 운세, 멀지 위기종 구상나무의 종자
고산식물 충신으로, 무독독하지만 미선씨를 잘 찾기다.



학명 : *Adzuki-dumpling* Kim Nak
미선씨 키: 25mm 봄무게: 4g 취미: 정원가꾸기
구상씨의 운세 속에서 미선나무의 풍자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성격이지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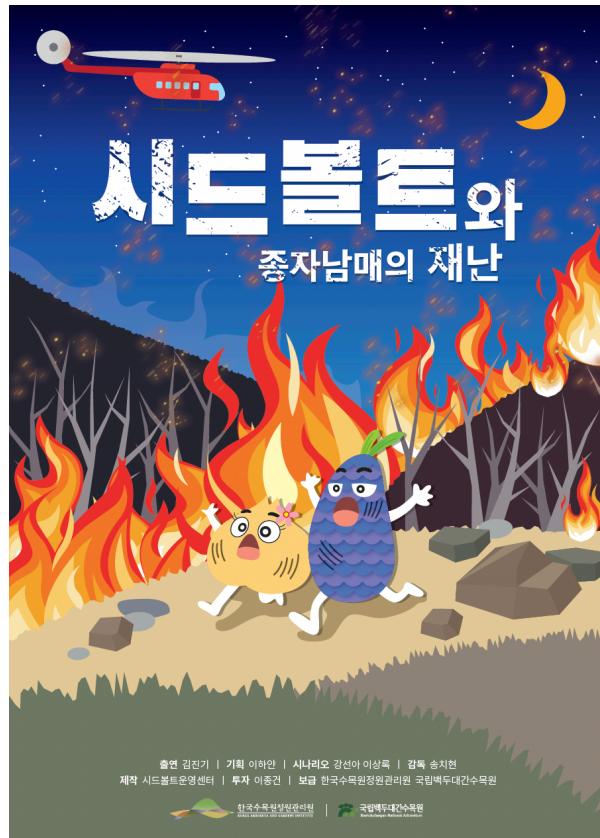
※구상씨(氏) : 산림청 지정 특산식물 구상나무 종자를 모티브로 개발, 미선씨의 오빠로 높은 곳을 좋아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쾌활한 청년

※미선씨(氏) : 산림청 지정 특산식물 미선나무 종자를 모티브로 개발, 오빠를 잘 따르고 정원 가꾸기가 취미인 MZ세대 청년

수목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상씨와 미선씨가 등장하는 홍보영상 선공개 시사회와 동시에 캐릭터 발족식을 가졌다. 본 영상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캐릭터들은 앞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용, 관람객용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 송치현 주임은 “우리의 특산식물을 모티브로 개발된 구상씨와 미선씨는 태생이 K-브랜드다. 앞으로 유튜브, 웹툰, 인형 등 일상 속 친숙한 캐릭터로 만들어 시드볼트와 산림생물자원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연 김진호 | 기획 이하안 | 시나리오 강선아 이상록 | 감독 송치현
제작 시드볼트운영센터 | 투자 이중건 | 보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6년마다 열리는 산림인들의 올림픽, 세계산림총회 참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전세계 식물 유전자원 영구 보전 나서
노르웨이 스발바르 시드볼트와 협력 강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글로벌 시드볼트가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시드볼트와 협력 강화를 통해 전세계 식물 유전자원의 영구 보전에 적극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에서 열린 부대행사에서 북유럽유전자원센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식물유전자원을 백업저장하는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의 동식물유전자원을 연구하는 북유럽유전자원센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식물유전자원을 영구 보전하는 시드볼트를 운영하고 있다.

북유럽유전자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시드볼트는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 스피치베르겐의 바위섬에 위치하고 있다.



업무 담당자 이하얀 팀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글로벌 시드볼트는 기후변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국내외 식물 종자를 보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및 공동 연구를 실시해 식물유전자원을 영구 보전할 수 있는 신기술 검증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참여

홍보부스 운영, 글로벌 종자 기탁 중요성 목소리 높여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 15차 세계산림총회(WFC)에 참여 했다.

산림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세계산림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분야 국제 행사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무려 44년 만이다.

이번 세계산림총회에서는 143개국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학계 등 1만 3천여 명의 산림·환경분야 관계자가 모여 지구의 산림·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세계산림총회에서 3일에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수목원·식물원 역할 강화’를 주제로, 6일에는 ‘산림연구 및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한 미래 기후변화 대응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일 컨퍼런스는 천리포수목원 김용식 원장, 북유럽 유전자원센터 LiSe Lykke Steffensen 센터장, 큐 왕립식물원 Hugh W. Pritchard 교수가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미래 지향적인 국내외 수목원·식물원의 역할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를 펼쳤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이번 세계산림총회에서 수목원·정원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체험 참여자에 대해 룰렛 이벤트와 SNS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또한 국외 참여자에 대하여 종자기탁예정서를 작성·발행하는 등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적극 홍보 하였다.

-시드볼트 단신-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발전 방향 모색 중장기 미션, 비전 등 국내 전문 자문위원 한자리에

시드볼트운영센터는 지난 5월 31일(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산림환경연구동 대회의실에서 제5회 시드볼트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운영자문위원회는 이종건 원장 외 자문위원 6명의 현장회의와 2명의 화상회의 참석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드볼트 중장기 미션과 비전, 제2터널 저장고 증축, 저장종자 다양화 방안 등 시드볼트 중장기 혁신 계획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드볼트 운영센터는 자문위원들의 자문내용을 자양분삼아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라는 이름에 걸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미래를 향한 시드볼트 중장기 운영 혁신계획 마련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지난 5년 간의 운영의 결과를 뒤돌아 보고, 앞으로의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중장기 운영 혁신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혁신 계획은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그 동안의 시드볼트는 저장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시드볼트 저장종자의 질적인 성장을 목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국내 미기록종, “완도술꽃나무” 자생지 종자 수집 백두대간 글로벌시드볼트 종자 입고

지난 6월 8일(수)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로부터 특별한 종자가 도착했다. 바로 완도술꽃나무의 종자인데, 완도술꽃나무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및 보전전략’ 연구과제 조사 중 완도 인근 섬에서 200여 그루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여, 2021년 12월 식물분류학회지에 국내 미기록종으로 발표하였다. 완도술꽃나무는 낙엽활엽수로 크기는 2~4m(최대 8m)로 자라며, 꽃은 암수딴그루로 3~4월에 잎겨드랑이에서 이삭처럼 늘어지는 연노란색 꽃이 잎보다 먼저 피는 식물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시통조화’로 불리며, 수목원이나 식물원, 정원 등에 관상용으로 식재되어 왔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완도술꽃나무’ 미기록종 등재도 경이로운 쾌거이지만, 이런 귀중한 종자가 시드볼트에 영구저장되어 미래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국내 다양한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들과 함께 목적별 종자 확보 및 저장방안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호주, 조지아 등 국외 시드볼트 네트워크 거점 지역을 구성으로 글로벌 한 시드볼트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www.koagi.or.kr

www.bdna.or.kr.

발행인: 배기화 센터장

-시드볼트 단신-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제7회 세계식물원 총회 참석

야생식물종자의 보전 중요성 알려 글로벌 시드볼트 입지 확보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2022년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되는 제7회 세계식물원총회를 참석하기로 하였다. 세계식물원총회는 전세계 식물원·수목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적 행사이다.



종자의 영구보존에 앞장서는 시설임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전지구가 함께하는 글로벌 한 시드볼트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

시드볼트는 이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홍보부스에는 시드볼트의 목적, 필요성 등을 알리고 야생식물종자 보존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로써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가 야생식물

2022년 종자수집 방법 워크숍 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22년 종자수집 워크숍 현지외 보전을 위한 야생식물 종자 수집 방법을 표준화 하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3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 2 연수동 대강당에서 야생식물종자의 현지외 보전을 위한 종자수집 방법 및 이력관리 방안에 대한 공유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안동대학교 정규영 교수 외 74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중심이 되어 종자수집 매뉴얼(영상)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영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기로 하였다.

2022년 국립공원연구원 시드 볼트 종자기탁식 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국립공원연구원, 야생식물 종자 보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 서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종자기탁식 및 연구교류 간담회」를 6월 16일(목) 진행하였다. 금번 연구교류 간담회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공원연구원이 2019년부터 진행한 3년 동안의 업무협약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2021년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공동 수집한 가문비나무, 흰참꽃나무, 매미꽃 등 10종(12점)의 종자를 국립공원공단의 이름으로

시드볼트에 기탁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 식물종의 안전한 보전을 도모하였다.



www.koagi.or.kr

www.bdma.or.kr.

발행인: 배기화 센터장

-광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여름 봉자페스티벌 개최’



(사진클릭시 동영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7월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과 함께 ‘여름 봉자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7월부터 텁방객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은 숲 가운데 누워 휴식하는 ‘숲명 해먹’ 체험을 비롯한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 체험’, 백두대간 자생식물 텁부처꽃을 이용한 ‘자생식물 가드닝(화분식재)’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수목원 내 두내천에서 열리는 ‘가든스테이-여름 향기’ 프로그램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숙박형 교육으로 예약방법은 수목원 누리집(www.bd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역농가에서 키운 자생식물로 지역 상생의 가치를 알리는 2022년 여름 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이하 봉자페스티벌)을 오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개최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의 소득창출과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개최한 봉자페스티벌은 올해 더욱 알차고 다양한 볼거리들로 관람객 맞이에 한창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으로 39개의 전시원을 무대로 우리꽃의 아름다움과 백두대간 숲속힐링을 즐길 수 있다. 야생화언덕의 텁부처꽃은 50만본 이상이 식재되어 핑크빛 정원을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시선을 압도하는 초대형 호랑이 공기조형물과 백두대간을 지키는 산할아버지 포토존에서는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수목원에서만 볼 수 있는 각양각색의 특별전시와 지역소상공인과 함께 만드는 ‘숲을 만드는 프리마켓’, 문화공연 ‘스테이지 102’, 남녀 노소 모두가 즐기는 교육체험존까지 일상에서 벗어나 백두대간의 품에서 진정한 쉼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숲캉스 프로그램에 참가해보자.

이번 봉자페스티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과 지역을 아끼는 ESG축제라는 점이다.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여 축제장에 꾸며지는 현수막은 모두 수거, 가드닝 앞치마로 재탄생된다. 또한 올해 총 31개의 봉화지역 농가의 위탁제약재배(42만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봉자페스티벌의 행사기간은 7월 30일부터 진행되는 봉화군의 대표축제인 봉화은어축제와 같은 기간이다. 번잡한 도심을 떠나 대한민국 대표 청정산촌인 봉화군으로 이번 여름휴가를 떠나보기를 추천한다.